



2007 회계년도 마지막 정기이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준비사항 점검

치협은 지난 4월 15일 2007회계년도 마지막 정기이사회를 갖고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 준비사항 점검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4월 26일 열린 치협 대의원총회 관련 준비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동시에 토의안건으로 올라온 '제1회 첨단치과의료 산업분야 아이디어 공모전' 과 관련한 협조사항 등에 대해 검토했다.

첨단치과의료 산업분야 아이디어 공모전은 지식경제부 지정 조선대 치과용 정밀장비 및 부품지역혁신센터에서 광주·전남 치과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실시되는 행사로 공모전 공동개최에 관한 명칭사용을 비롯

해 치의신보 홍보 및 심사위원 2명 위촉 등에 대해 치협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공동개최 치협 명칭사용과 치의신보 홍보 등을 협조키로 했으며, 심사위원 위촉은 기획위에서 추천키로 했다.

이외에 보고사항으로 올라온 '치과의사전문자격시험 백서 및 대책위원회 건의(안)' 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백서 내용에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의자격시험 시행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의 전문의 관련 모든 역사적 과정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치의학회 새 회장에 김여갑 교수 4명 입후보...2차 투표 접전 '당선'

제3대 대한치의학회 회장에 김여갑 교수(경희대 치전원 구강악안면외과·대한치과마취과학회 회장)가 당선됐다.

치의학회는 지난 4월 18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25개 인준 분과학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분과학회협의회를 열고 김여갑 교수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치의학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상완·이하 선관위) 주관 하에 열린 이날 선거에서는 기호 1번 김여갑 교수, 기호 2번 박준봉 교수, 기호 3번 차경석 교수, 기호 4번 김각균 교수 등 네명이 입후보해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25명의 분과학회 회장들이 전원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서 투표가 진행됐다.

네명의 후보가 정책소견을 간략히 발표한 후 진행된 1차 투표에서 과반수(13표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여갑 교수와 박준봉 교수가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김여갑 교수가 최종 당선됐다.

이로써 치의학회 회장으로는 처음으로 경희치대 출신의 회장이 선출됐으며, 치의학회장은 당연직으로 치협 학술담당 부회장으로 임명된다.

이와 함께 치의학회 신임 감사로는 이근우 교수(연세치대 보철과)와 이종철 대한치과기재학회 회장이 선출됐다.

한편 선관위에서는 각 후보의 1, 2차 투표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News
& News

김춘진 완승 전현희 첫발 '여의도 입성'

18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치과의사 2인 최종 당선

치과의사 출신 김춘진 통합민주당 의원과 전현희 치협 고문변호사가 제18대 국회의원으로 최종 당선됐다.

지난 4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제18대 총선 개표 결과 총 299명의 '국민일꾼'이 새로 탄생했다. 이중 의약계 인사는 치과의사 2명, 의사 4명, 약사 3명, 간호사 2명, 한의사 1명 등 모두 1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6명의 치과의사가 지역구 및 비례대표로 출마한 이번 총선에서 치과의사 당선자는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 등 총 2명으로 김춘진 당선자(민, 전북 고창·부안)는 재선, 전현희 당선자(민, 비례대표)는 첫 국회 등원의 영예를 각각 안게 됐다. 4년 전 17대 총선

에서는 김춘진 의원만이 유일하게 당선됐었다.

반면 '개원의' 임성락(민, 서울 중랑갑), 김창집 후보(민, 경기 김포)는 선거 초반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으며, 무소속 이재용(무, 대구 중·남구), 김영환 후보(무, 경기 안산 상록갑) 등 치과의사 출신 전직 장관 2인 역시 아쉽게 낙선했다.

전북 고창·부안 지역구의 김춘진 당선자는 3만5662표로 77.4%의 지지를 받아 6571표(14.3%)를 획득한데 그친 한나라당 김종훈 후보를 압도했다. 김 당선자는 개표 초반부터 경쟁자들을 일찌감치 앞서나가며 재선을 확정지었다. 77.4%의 지지율은 전북지역 내 최고 득표율이다.

News
& News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 8월 1일로 3개월간 유예

환율·원자재가격 급상승...건정심서 결정

5월 1일 진료분부터 인하 예정이었던 치과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이 8월 1일로 3개월간 유예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 21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지난 1998년 IMF발생으로 환율이 단기간에 대폭 상승해 치료 재료 가격을 일괄적으로 인상했으나, 환율이 안정화 됨에 따라 2007년 11월 1일 1차로 상한금액을 인하 조정하고 급격한 가격 인하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 이상 인하되는 품목은 2007년 11월과 2008년 5월 2차례로 나누어 인하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건정심 회의에서는 환율 및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고 이에 따른 치료재료 원가가 상승해 X-ray 필름 등 일부 품목의 공급차질이 예상된다라는 의약단체 의견에 대해 격론을 벌인 끝에 5월 1일부터 인하 예정이었던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8월까지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3개월 유예기간 동안 정부 측에서는 치료재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건정심에 별도 보고 후 재결정하기로 했다.

